

남원에 4년간 2201억 투입 '미래농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시행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스마트 생산·가공·유통·R&D 집적 전후방 산업 집중 육성

남원시가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지난 7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이은 성과로 미래 농생명 산업 허브 전초 기지로 급부상 할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 추진의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은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 육성과 국

가적 거점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도내 19개 지구(12개 시·군) 중 7개소 선정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지구 선정을 통해 47.1ha 규모의 ECO 스마트팜을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 산업 등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체험이 어

우러진 미래농업 복합단지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 내에는 2028년까지 220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임대경영(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 원예단지) ▲폐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급자리) ▲정주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 한다. 특히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와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단지

에 취업 시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남원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법에 의해 전북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 유치, 각종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남원시는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조례 제정과 농생명산업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

께 인·허가 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팜·바이오·6차산업을 연계해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CO 스마트팜 농생명산업지구에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층 유입이 활성화 돼 지방소멸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 시·군 의장단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반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굴욕 대외외교 중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 의장단이 정읍에 모여 각 시군의 현안사업을 논의하며 개선점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0일 정읍 차항문화관에서 정읍시의회가 주관해 14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회의에서는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철회와 원자력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어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외외교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며 사도광산 강제 동원의 역사적 진실 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멈추고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즉각 철회하라!
2024. 9. 10.(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

지난 10일 정읍 차항문화관에서 제285차 월례회의를 연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관련 내용의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공> 명과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외외교의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첫 의장단 협의회가 정읍에서 열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자치분권을 성장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등록 생활인구 1년만에 10만명 목표 달성

TF 활동·관광주민증 운영 등 성과 10만번째 주인공에 지역상품권

'등록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선포했던 전북 남원시가 1년여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등록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 후 9월부터 생활인구 정책 고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개통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해 왔다. 시청 내에는 전담부서(생활인구TF팀)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1년간의 유치 노력으로 남원시는 등록 생활인구 10만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등록 생활인구 10만 번째 주인공은 서울 거주 신창용씨(60대·9월11일 기준)로 나타났다. 신씨는 이날 남원시로

부터 축하의 꽃다발과 남원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선물로 받았다. 남원시는 지역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과 재방문을 위한 여러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남원누리민제도'를 시행해 등록 생활인구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주소지 상관없이 남원 누리민이 되면 관광지, 식당, 카페 등 가맹점을 이용할 때 19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며 "많은 분들이 우리 남원시의 생활인구가



남원시 등록 생활인구 10만명 돌파 축하합니다
남원시 등록 생활인구 10만 번째 주인공 신창용(왼쪽)씨가 최경식 남원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지난 11일 전북자치도 남원시 '등록 생활인구' 10만 번째 주인공 신창용(왼쪽)씨가 최경식 남원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숙박·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고창군이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군의 조치다.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됨 예정이다.

개정이 예고된 조례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견베울 완화 등이다. 군은 9월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군계획조례 개정이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기념탑 제막

심원면에 1985년 삼양사 소유 간척지 반환 농민투쟁 기념

고창군이 지난 11일 심원면 공산저수지에서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창소작답양도기념사업회(회장 이성규)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제막식은 농민운동 참여자, 관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주년 고창 소작답 양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50년 토지개혁과정 중 농지개혁대상에서 제외된 삼양사 소유의 고창간척지(일제강점기 때 조성)를 되찾기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지역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조직적인 투쟁을 벌인 운동이다. 약 3년 동안 심원면 공산마을 김재만 씨를 비롯 한 심원면 해리면 일대 소작농들은 공산저수지 독에서 시위를 시작해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농학단 지원으로 서울 상경투쟁, 삼양사 분사 점거 농성까지 이어졌다. 결국 37년 전인 1987년 9월 11일 수 차례의 협상 끝에 삼양사 측이 소작농들에게 소작답 296ha를 정부 고시가격인 평당 1881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이후 충남 서산 서풍농장, 전남 영암 학파농장과 고흥 죽암농장, 경기 평택 등 약 20여 곳에서 토지 분배를 요구하는 농민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당시 투쟁에 참여한 농민들 중심으로 기념사업회가 꾸려지고 매년 9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고창군은 양도투쟁 농민운동의 역사를 조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 기념탑 제막식에서 심덕섭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명하고 당시 참여자의 농민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심원면 공산저수지 입구에 기념탑을 건립했다. 탑은 농민, 학생, 지역을 표현하는 세 조각의 조형물이 투쟁의 결실과 농민들의 땀방울을 상징하는 물방울과 함께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농민의 품으로 돌아온 땅에서 익어가는 밀알을 황금색으로 표현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자매결연 '중 서주시' 사진전

정읍시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서주시의 명소를 소개하는 사진전이 정읍시청 로비에서 오는 22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양 도시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서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매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서주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서주시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도시 전경을 담은 10점의 사진이 공개된다. 정읍시와 서주시는 2000년 9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 교류전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류로 전환된 상태다. 앞으로



정읍시청 로비에 전시된 중국 강소성 서주시의 명소 사진들. 양 도시는 명소 사진 전시에 이어 문화·관광 등 적극적인 우호교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앞으로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